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 연구

류 경 화 · 김 양 희*

인하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프랑스 궁정 화가의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를 분석함으로써 당시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회화를 통해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함으로써 18세기 전체적인 색채 경향을 살펴본다. 둘째, 회화에 나타난 18세기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를 연도별로 분석 및 비교함으로써 색채의 변화를 알아본다. 18세기 프랑스의 복식 스타일은 서유럽 내에서도 주도적이었으며, 특히 프랑스 궁정의 복식은 전반적인 복식 흐름을 파악하는 데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각 시기를 대표하는 궁정 화가의 초상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와토(Watteau), 나티에(Nattier), 부셰(Boucher), 르 브룅(Le Brun), 다비드(David)의 유화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복식은 인체를 감싸고 있는 의복으로 규정하되 의복과 함께 인체에 걸쳐진 상태로 그려진 술과 같은 텍스타일류는 포함시켰으며, 그 외에 머리 장식 목걸이, 부채 등의 장신구의 색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집한 이미지의 색상을 추출하기 위해 색동코리아의 한국표준색 색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복식의 색채분석에 따르면 흰 Y는 주조색으로, 회 Y는 보조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당시 부드러운 색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또한 색상의 분포가 B 계열보다는 R과 Y 계열에 집중되어 있고, 대체로 저채도·고명도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18세기 궁정 화가 다섯 명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각 화가의 회화 경향과 당시 복식에 사용된 색채 경향이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색채연구, 색채경향, 궁정복식, 18세기 프랑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복식은 고대부터 신체 보호, 신체 장식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착용되어 왔으며, 각각의 의복은 그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다.¹⁾ 따라서 과거 복식 연구를 통해 당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과거의 복식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 고찰, 보존 및 재현 복식 관찰, 예술 작품 분석, 구전되어 오는 정보 확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구조를 알기 위한 가장 정확한 조사는 보존 복식의 관찰처럼 실물을 조사하는 것이나, 지역적, 시대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자료의 고찰을 통해 과거의 복식을 분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중에서도 회화는 사회적 현상이나 생활상 등 당시의 풍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회화 작품에 표현된 복식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²⁾ 회화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당시의 모델, 화가, 시대 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복식에 대해 알 수 있는 여러 단서를 제공한다.

여러 시대 중에서도 18세기 서유럽은 복식 문화가 뛰어났으며, 특히 프랑스의 복식 스타일은 같은 서유럽 내에서도 주도적이었다. 그 중 프랑스 궁정의 복식은 당시 유행의 선두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당시의 전반적인 복식 흐름을 파악하는 데 기준이 된다. 특히 18세기 로코코 양식은 오늘날까지 건축,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복식 디자인 분야에서는 많은 디자이너들의 영감이 되고 있다. 더불어 17세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대보다 더욱 많은 수의 초상화가 그려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18세기에도 이어져 많은 작품을 남겨 현재 과거 복식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³⁾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현황을 살펴

보면,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⁴⁾, 미술사조가 복식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⁵⁾, 회화 작품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⁶⁾⁷⁾, 아르데코 시대의 복식의 색채에 관한 연구⁸⁾ 등이 있다. 이처럼 회화에 표현된 복식의 조형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 혹은 복식의 색채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는 이미 상당수 진행되어 왔으나, 회화에 표현된 복식 색채의 빈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회화를 통한 복식의 색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의 복식은 과거 복식 스타일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과거의 복식색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트렌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 무대의상 및 영화의상 제작 시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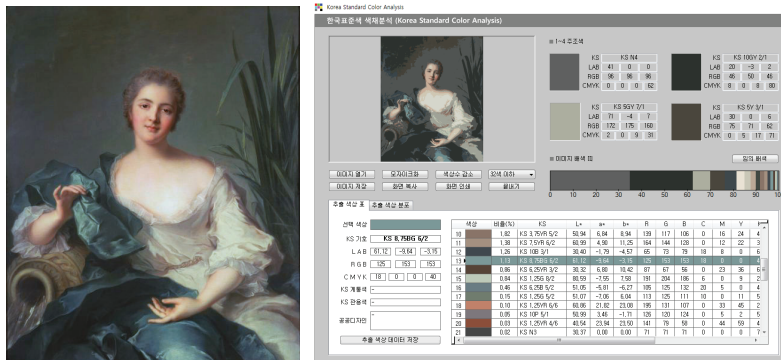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18세기 프랑스 회화를 통해 과거 복식의 색채를 연구함으로써, 당시의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18세기 프랑스 궁정 화가들의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화를 통해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에 나타난 색채를 분석함으로써 18세기 전체적인 색채 경향을 살펴본다.

둘째, 회화에 나타난 18세기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를 시기별로 분석 및 비교함으로써 색채의 변화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색채연구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통합시킬 수 있는 진정한 틀은 미술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나, 오래된 미술 작품의 경우 변질과 부식에 취약하여 색채에 관한 해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⁹⁾ 이와 같이 변색의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으나, 본 논문의



〈그림 1〉 한국표준색 색채분석 프로그램 사용 예시
(출처 :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http://standard.go.kr/>)

분석 대상인 궁정화가의 작품의 경우는 색이 선명하게 표현되는 유화로 그려진 초상화이며, 궁중유물으로써 비교적 보관이 잘 되어 왔다는 점에서 실제 의복의 색이 사실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색의 변색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화와 유사한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런던 내셔널갤러리(The National Gallery London, <http://nationalgallery.org.uk/>), 메트로폴리탄 박물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http://metmuseum.org/>), 월레스 컬렉션(Wallace Collection, <http://wallacelive.wallacecollection.org/>),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 <http://cartelen.louvre.fr/>),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http://collections.vam.ac.uk/>) 등 5개의 회화 소장 박물관 공식 웹사이트의 카탈로그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색채의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실물과 유사하게 인쇄되는 루브르 박물관의 도판¹⁰⁾과 디지털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루브르 박물관의 도판 중 『마담 뻬쿨(Madame Pécoule)』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미지와 도판 프린트 이미지의 색상을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색상, 채도, 명도의 오차가 1단계 이하로 그 차이가 매우 작았다. 타 웹사이트 이미지의 역시 유사한 비교결과가 도출

되어 웹사이트 상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었다.

회화의 색상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연구자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임의로 추출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나, 이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추출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색채 추출을 위해 색동코리아의 한국표준색 색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색상 목록에서 주조색과 보조색을 선택하였다. <그림 1>과 같이 한국표준색 색채분석 프로그램은 삽입된 이미지를 모자이크화하여 색상 수 감소를 실행하고 각 이미지에 따른 주조색과 이미지 배색비를 결과로 제시하기 때문에¹¹⁾ 이미지의 색채를 추출함에 있어 객관성이 유지될 것이라 사료된다.

색상은 면적 비에 따라 의복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을 주조색, 그 다음 면적에 해당하는 색을 보조색으로 하였다. 보조색의 경우, 사용 비율이 비슷하거나 시각적 우선성이 비슷하여 대표 색채 1개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최대 3개까지 포함하였다. 한 작품 안에 여러 명의 모델이 그려져 있을 경우에는 색상 추출 가능한 모델의 복색만을 추출하였다.

복색의 색상, 채도, 명도 분석은 먼셀 색체계를

따라 색상은 빨강(R), 주황(RY), 노랑(Y), 황록(GY), 녹색(G), 청록(BG), 파랑(B), 청자(PB), 보라(P), 자주(RP)의 10색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무채색일 경우 약호 N(Neutral)과 명도 단계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색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각 주조색과 보조색의 KS계통색명법(KS A 0011)에 따른 수식형용사의 등장 빈도를 알아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는 회화는 18세기 회화 경향의 대표성을 지녔으며 각각 초기, 중기, 말기를 대표하는 궁정화가인 장 앙투완 와토(Jean Antoine Watteau, 1684-1721), 장 막 나티에(Jean Marc Nattier, 1685-1766), 프랑소와 부셰(François Boucher, 1703-1770), 마리 루이즈 엘리자베스 비제르 브룅(Marie-Louise-Élisabeth Vigée Le-Brum, 1775-1842), 자끄 루이 다비드(Jacques-Louis David, 1748-1825)의 작품을 선택하였다. 특히 궁정 화가들은 주로 복식에 민감한 궁정의 왕족이나 귀족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복식의 묘사가 뛰어나며, 작품의 대상이 대부분 높은 신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작품이 보다 잘 보존되어 있어 색채를 분석하는 데 비교적 정확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변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색이 보다 선명하게 표현되는 유화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귀족이나 왕족을 그린 회화, 상반신이 전부 표현되어 있는 회화를 기준으로 정해 56점의 회화를 수집하고 작가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대상이 되는 복식은 인체를 감싸고 있는 의복으로 규정하되 의복과 함께 인체에 걸쳐진 상태로 그려진 술과 같은 텍스타일류는 포함시켰으며, 그 외에 머리 장식 목걸이, 부채 등의 장신구의 색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I. 18세기 프랑스 궁정회화의 경향

1. 18세기 프랑스 예술사조의 경향

17세기 불규칙적이고 과장된 성격의 바로크 예술이 유행하여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다른 특징을 가진 로코코 양식이 프랑스로부터 시작되어 건축, 음악뿐만 아니라 직물 패턴과 복식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²⁾ 따라서 후기 바로크는 로코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으며, 18세기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계속되었다.¹³⁾

로코코 양식은 18세기 유럽에 전반적으로 유행하였으며, 건축, 조각, 장식 미술,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행하였다. 로코코는 석굴이나 분수 등을 장식하는 데 쓰인 조개 장식을 뜻하는 로카이유(rocaille)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본래는 당시의 귀족들을 위한 장식양식 혹은 공예품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후에 전반적인 유럽 예술 양식-특히 프랑스 미술-을 뜻하는 개념이 되었다. 로코코 예술을 특히 프랑스의 살롱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자유로운 살롱의 분위기와 같이 귀족적이고 경쾌한 특색을 지니게 되어 특히 장식미술의 발전을 이루었다.¹⁴⁾ 당시 정치적 이유로 파리가 건축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실외보다는 실내 장식이 새롭게 조명 받아 좌우 불균형적이고 운동감이 뛰어난 C형, S형 곡면을 활용하여 내부 공간을 꾸몄다.¹⁵⁾

로코코 시대에는 실내 장식 외에도 회화가 번성하여 귀족뿐만 아니라 서민층에게도 회화를 취미로 삼는 생활이 확산되면서 미술평론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에는 색채논쟁(Querelle du coloris)이 존재하였는데, 데생을 강조하는 푸생(Poussin)파와 색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루벤스(Rubens)파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깝고 경쾌한 필체, 부드러운 색채와 화려한 표현의

루벤스파는 당시 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회화에서와 같이 로코코 시대에는 주로 파스텔 색조의 복식이 유행하였으며, 황금색보다는 은색이, 보랏빛과 자줏빛 대신 밝은 하늘색과 장밋빛이 주로 사용되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빛바랜 노란색이 진한 오렌지색을 대신하게 되었다.¹⁶⁾ 동시에 풍속화의 양식도 유입되어 사물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였는데, 와토의 『카테라 섬의 순례』는 1717년 아카데미에 등록된 작품으로, 로코코 미술의 특징을 드러내는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¹⁷⁾ 와토는 특히 로코코 양식 회화의 보다 섬세하고 본질적인 감각효과에 몰두하여 경쾌한 느낌은 점차 에로티시즘적인 화풍으로 변했다.¹⁸⁾ 부세는 와토가 추구했던 감정적인 깊이를 결여하면서까지 유희적인 경향을 극대화시켜 나갔는데, 풍파두르(Pompadour) 부인의 후원을 받으며 왕궁의 화려한 왕족들과 실내장식을 그림에 담으면서 세속적인 풍요로움을 즐겼다.¹⁹⁾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시민 계급의 계몽이 일어나고 산업 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계급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로코코 양식은 쇠퇴하고 보다 간결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신고전주의가 등장하였다.

2. 18세기 프랑스 궁정화가의 경향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궁정화가별 작품과 화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의 로코코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인 장 앙투안 와토는 극장장식가인 클로드 질로(Claude Gillot)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물의 동작뿐만 아니라 복식의 주름과 색채에도 중점을 두었다.²⁰⁾ 16세기의 베네치아 회화를 숭배한 와토는 섬세한 파스텔 색조와 다소 음울하면서도 낭만적인 색채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터 폴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영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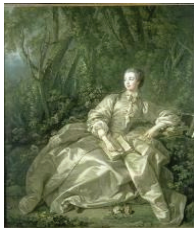
로 자유로우면서도 섬세한 회화 테크닉을 발전시키면서 따뜻하고 희미하게 빛나는 색채를 즐겨 사용하였다. 와토의 대표작 『카테라 섬의 순례』는 당시 회화의 경향이 바로크에서 로코코 시대로 넘어왔음을 알리는 작품이다. 와토는 아연화(fête galante)를 대표하는 화가로, <그림 2>과 같이 작품의 대상을 주로 귀족층으로 삼고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즐겨 그렸다. 이러한 와토의 우아하고 낭만적이며 세련된 화풍은 부세와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Jean Honoré Fragonard)에 의해 계승되었다.

장 마르크 나티에는 루벤스의 연작 『La vie de Marie de Medici』의 모사를 프랑스 궁정으로부터 의뢰 받으면서부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717년 네덜란드에서 일하던 1년을 제외하고는 그의 고향인 프랑스에서 일생을 보냈다. 활동 초반에는 역사화를 그려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었으나, 1720년대 이후부터는 초상화에 집중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그의 여동생을 초상화의 대상으로 삼아 그녀를 신화적 존재로 묘사하였으나 이후 <그림 3>와 같이 점차 귀족적인 취미를 반영하는 여신이나 로코코풍의 궁정 여인들을 모델로 삼았다. 나티에가 사용한 색채는 깨끗하고 진주와 같은 색을 사용하였으며 더불어 은빛이 나는 파란색 혹은 pale 톤의 회색 등과 같은 차가운 느낌의 색채를 사용하였다.²¹⁾

프랑수와 부세는 로코코 시대의 요구와 취향을 완벽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상층부는 물론 서민층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어 그는 풍파두르 부인의 후원을 받으며 왕궁의 화려한 왕족들과 실내장식을 그림에 담았다. 루이 15세의 수석화가로 임명되면서 자신만의 경쾌하고 세련된 느낌을 초상화로 표현하였으며 주로 <그림 4>과 같이 루이 15세의 애첩의 초상화 『Madame Pompadour』를 그렸다. 부세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판타지를 그려내기 위해 주로 요염한 포즈의 분홍빛의 누드화를 즐겨 그렸으며 원색이 아닌 탁한 느낌의 색채를 자주

장 앙투완 와토	 Capitulations and country dance wedding, 1711, (출처: http://cartelen.louvre.fr)	 Festival in a park, 1712-1713 (출처: http://cartelen.louvre.fr)	 Voulez-vous triompher des Belles?, 1714-1717 (출처: http://wallacelive.wallacecollection.org)	 The Scale of love, 1715-1718 (출처: http://collections.vam.ac.uk)
	 Pour nous prouver que cette belle, 1717-1718 (출처: http://wallacelive.wallacecollection.org)	 Rendez-vous de chasse, 1717-1718 (출처: http://wallacelive.wallacecollection.org)	 Les charmes de la vie, 1718-1719 (출처: http://wallacelive.wallacecollection.org)	 Fetes Venitiennes, 1718-1719 (출처: http://collections.vam.ac.uk)
	 The dance, 1719 (출처: http://www.metmuseum.org)	 Fête galante in a wooded landscape, 1719-1721 (출처: http://wallacelive.wallacecollection.org)	 Les Champs Elisées, 1720-1721 (출처: http://wallacelive.wallacecollection.org)	 The French comedians, 1720-1721 (출처: http://www.metmuseum.org)
	 Figures in an Arcadian landscape, 18세기 (출처: http://collections.vam.ac.uk)			
장 막 나티에	 Portrait of mademoiselle de Clermont aux Eaux minérales de Chantilly, 1719 (출처: http://cartelen.louvre.fr)	 Portrait of Louise Henriette de Bourbon Conti, duchesse d'Orléans, en hébé, 1732 (출처: http://cartelen.louvre.fr)	 Madame Geoffrin, 1738 (출처: http://www.metmuseum.org)	 Portrait of Madame Marie-Henriette Berthelot de Pleneuf, 1739 (출처: http://www.metmuseum.org)

장 막 나 티 에				
	Marie-Anne de Mailly-Nesle, 1740 (출처: http://cartelen.louvre.fr)	Portrait of Constance-Gabrielle-Magdeleine Bonnier de la Mosson as Diana, 1742 (출처: http://www.metmuseum.org)	Madame de Maison-Rouge as Diana, 1742 (출처: http://www.metmuseum.org)	Angélique d'Allonville de Louville, 1746 (출처: http://cartelen.louvre.fr)
				
	Madame Marsollier and her daughter, 1749 (출처: http://www.metmuseum.org)	Portrait of Marie Leszczyńska, 1750 (출처: http://cartelen.louvre.fr)	Portrait of a woman, Called the Marquise Perrin de Cypierre, 1753 (출처: http://www.metmuseum.org)	Madame de la Porte, 1754 (출처: http://cartelen.louvre.fr)
				
	Manon Balletti, 1757 (출처: http://wallacelive.wallacecollection.org)			
프 랑 소 와 부 세				
	Family taking breakfast, 1739 (출처: http://cartelen.louvre.fr)	La toilette, 1742 (출처: http://cartelen.louvre.fr)	Are they thinking about the grape?, 1747 (출처: http://www.metmuseum.org)	A young lady holding a pug dog, 1740 (출처: http://www.metmuseum.org)

프랑스와 부세				
	Jeanne-Antoinette Poisson, Marquise de Pompadour, 1750 (출처: http://www. metmuseum.org)	The Billet Doux, 1754 (출처: http://cartelen. louvre.fr)	Madame de Pompadour, Mistress of Louis XV, 1758 (출처: http://collec tions.vam.ac.uk)	Madame de Pompadour (Jeanne-Antoinette Poisson), 1758 (출처: http://wallacelive. wallacecollection.org)
마리루이즈 엘리자베스 비제르브링				
	Madame de Pompadour, 1759 (출처: http://wallacelive. wallacecollection.org)	The Marquise de Pompadour, 알 수 없음 (출처: http://cartelen. louvre.fr)		
마리루이즈 엘리자베스 비제르브링				
	Self portrait, 1781 (출처: http://www. metmuseum.org)	The Duchesse de Polignac Wearing a straw hat, 1782 (출처: http://www. metmuseum.org)	Madame Grand, 1783 (출처: http://www. metmuseum.org)	Marie-Antoinette with the rose, 1783 (출처: http://cartelen. louvre.fr)
마리루이즈 엘리자베스 비제르브링				
	The Comtesse de Cérés, 1784 (출처: http://cartelen. louvre.fr)	Portrait of Marie Gabrielle de Gramont, 1784 (출처: http://www. metmuseum.org)	The Vicomtesse de Vaudreuil, 1785 (출처: http://cartelen. louvre.fr)	The Marquise de Pezay, and the Marquise de Rougé with her sons Alexis and Adrien, 1787 (출처: http://wallacelive. wallacecollection.org)

마리 루이즈 엘리자베스 비제 르 브룅				
	Comtesse de la Châtre, 1789 (출처: http://www.metmuseum.org)	Portrait of princess Alexandra Golitsyna and her son Piotr, 1794 (출처: http://www.metmuseum.org)	Julie as Flora, Roman Goddess of Flowers, 1799 (출처: http://www.metmuseum.org)	
자크 루이 다비드				
	Madame Charles-Pierre Pécoul, 1784 (출처: http://cartelen.louvre.fr)	Portrait of Madame Joubert, 1787 (출처: http://cartelen.louvre.fr)	Antoine-Laurent Lavoisier and his wife, 1788 (출처: http://www.metmuseum.org)	Madame Raymond de Verninac, 1789-1799 (출처: http://cartelen.louvre.fr)
				
	Madame Charles-Louis Trudaine, 1791-1792 (출처: http://cartelen.louvre.fr)	Catherine-Marie-Jeanne Tallard, 1795 (출처: http://cartelen.louvre.fr)	Madame Pierre Sériziat and one of her sons, 1795 (출처: http://cartelen.louvre.fr)	Madame Récamier, 1800 (출처: http://cartelen.louvre.fr)

사용하였다.²²⁾

프랑스 궁정의 여성 초상화가인 마리 루이즈 엘리자베스 비제 르 브룅은 귀족들의 사랑을 받는 수많은 초상화를 남겼는데, 사랑과 여성적인 것 그리고 귀족적 취향을 동경했던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매우 잘 묘사하였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여성이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거나 궁정 화가가 되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여왕 마리 앙투와

네트(Marie Antoinette)는 르 브룅이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며 그녀와 가까이 지냈다. 특히 르 브룅은 여왕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으며 여왕의 사치스러운 모습이 아닌 쾌활한 성격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렸다고 평가 받고 있다. 섬세한 붓 칠, 풍부한 색채 등 그녀만의 여성스러운 회화 양식은 플랑드르(Flandre) 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르 브룅은 <그림



〈그림 2〉
장 앙투완 와토, Figures in an Arcadian Landscape, 1721
(출처: <http://collections.vam.ac.uk>)



〈그림 3〉
장 마르크 나티에, Marie Anne de Mailly-Nesle, 1740
(출처: <http://metmuseum.org/Collections/search-the-collections>)



〈그림 4〉
프랑수아 부세, Madame de Pompadour, 1759
(출처: <http://collections.vam.ac.uk>)



〈그림 5〉
엘리자베스 루이스 비제 르 브룅, Comtesse de la Châtre, 1789
(출처: <http://metmuseu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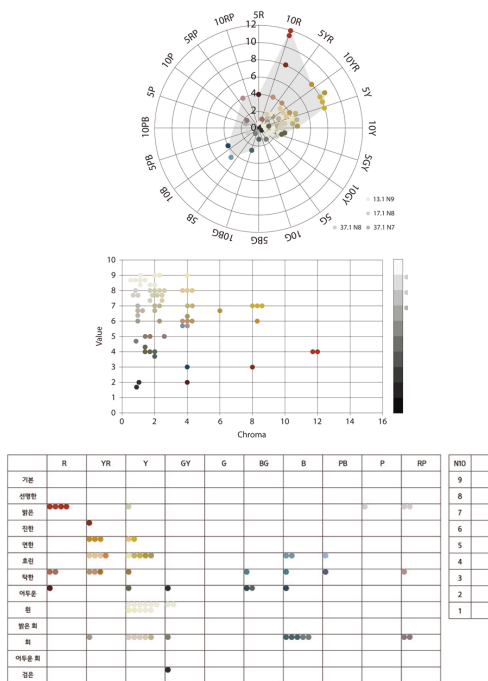


〈그림 6〉
자크 루이 다비드, Madame Raymond de Verninac, 1789-1799
(출처: <http://cartelen.louvre.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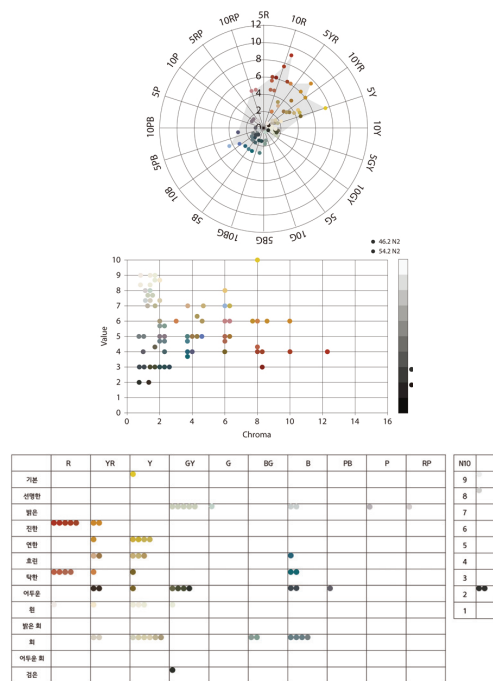
5>와 같이 벨벳과 새틴의 빛에 의한 광택을 포착하여 모델을 부각시키는 데에 색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²³⁾

18세기 말, 로코코 양식이 쇠퇴하며 신고전주의가 새로운 예술 양식으로 대두되었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자크 루이 다비드는 파리 출생으로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화가로, 이전까지의 르네상스적, 바로크적, 로코코적 고전주의와는 다른 자연적이면서도 정밀한 고전주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객관성을 지향하였다.²⁴⁾ 그는 주로 역사화를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로코코적 양식을 거부하고 선명

한 윤곽선과 깨끗한 화면 구성을 통해 이성적인 표현을 중점으로 두었다.²⁵⁾ 또한 다비드는 역사화 외에도 신화적인 주제의 그림이나 <그림 6>과 같은 초상화를 그렸는데, 밝은 색조와 빛의 요소를 도입하여 특별한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엄격한 구성으로 시대 상황에 열정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²⁶⁾



〈그림 7〉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주조색 경향



〈그림 8〉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보조색 경향

〈표 2〉 면설 색채계와 KS 색채계에 따른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주조색 빈도표

	R	YR	Y	GY	G	BG	B	PB	P	RP	합계	N10	0
기본	0	0	0	0	0	0	0	0	0	0	0	N9	0
선명한	0	0	0	0	0	0	0	0	0	0	0	N8	0
밝은	4	0	1	0	0	0	0	0	1	1	7	N7	0
진한	0	1	0	0	0	0	0	0	0	0	1	N6	0
연한	0	3	2	0	0	0	0	0	0	0	5	N5	0
흐린	0	4	5	0	0	0	2	1	0	0	12	N4	0
탁한	2	3	1	0	0	1	1	1	0	1	10	N3	0
어두운	1	0	1	1	0	2	1	0	0	0	6	N2	0
흰	0	0	11	2	0	0	0	0	0	0	13	N1	0
밝은 회	0	0	0	0	0	0	0	0	0	0	0		
회	0	1	5	1	0	0	5	0	0	2	14		
어두운 회	0	0	0	0	0	0	0	0	0	0	0		
검은	0	0	0	1	0	0	0	0	0	0	1		
합계	7	12	26	5	0	3	9	2	1	4	69		

III. 18세기 프랑스 궁정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1. 18세기 복식의 색채경향

18세기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수집한 회화 63점 중 색상 추출이 불가능한 7점을 제외한 총 56점의 회화를 대상으로 색채를 분석하였다. 18세기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복식

의 색채를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한 회화에 여러 명의 인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주조색은 69개, 보조색은 68개가 추출되었다.

1) 18세기 복식의 주조색 경향

<그림 7>을 살펴보면 색상은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채도는 0-4이 가장 많았고 최대 채도 값은 12였다. 또한 명도는 1부터 9까지 범위가 매우 폭이 넓었으나, 주로 고명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무채색은 N7, N8, N9로 비교적 흰 색에 근접한 색이 나타났다.

KS 계통색명 등장 빈도표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G계열의 색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 Y 계열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톤으로 보면 차례대로 흰, 회, 흐린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흰 Y가 가장 많이 확인

되었고, 흐린 Y와 회 Y, 회 B가 동등한 빈도를 보였다. 기본, 선명한, 어두운 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2) 18세기 복식의 보조색 경향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색상은 YR와 Y, 채도는 대부분 고르게 나타났지만 비교적 저채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명도는 2에서 10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Y 계열의 색상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반면 선명한, 밝은 회, 어두운 회 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색상은 G, P, RP 계열이 각각 1번으로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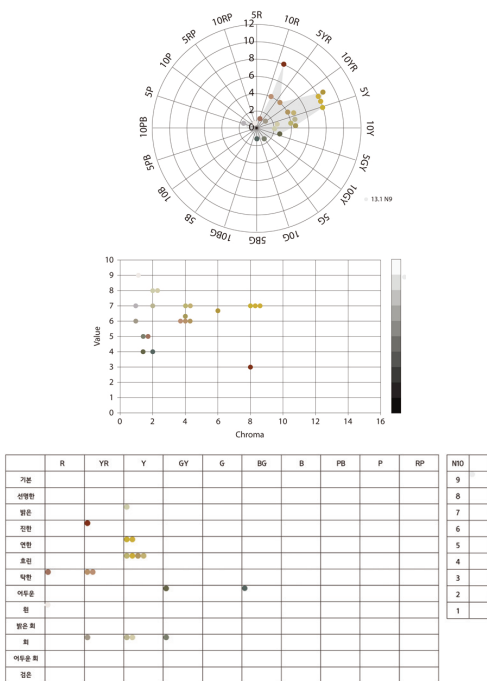
주조색과 보조색의 경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주조색은 보조색에 비해 색상에 관계없이 저채도가 대부분이었으며, 명도도 비교적 고명도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색이 주조색에 비해 색상 면에서 훨

<표 3> 만셀 색채계와 KS 색채계에 따른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보조색 빈도표

	R	YR	Y	GY	G	BG	B	PB	P	RP	합계	N10	0
기본	0	0	1	0	0	0	0	0	0	0	1	N9	1
선명한	0	0	0	0	0	0	0	0	0	0	0	N8	1
밝은	5	0	0	5	1	0	2	0	1	1	15	N7	0
진한	0	2	0	0	0	0	0	0	0	0	2	N6	0
연한	0	1	4	0	0	0	0	0	0	0	5	N5	0
흐린	0	2	3	0	0	0	1	0	0	0	6	N4	0
탁한	4	1	1	0	0	0	2	0	0	0	8	N3	0
어두운	0	2	1	4	0	0	2	1	0	0	10	N2	4
흰	1	1	3	1	0	0	0	0	0	0	6	N1	0
밝은 회	0	0	0	0	0	0	0	0	0	0	0		
회	0	2	6	0	0	2	4	0	0	0	14		
어두운 회	0	0	0	0	0	0	0	0	0	0	0		
검은	0	0	0	1	0	0	0	0	0	0	1		
합계	10	11	19	11	1	2	11	1	1	1	68		

<표 4> 수집된 회화의 시기별 빈도표

화가 시기	회화 수					
	와토	나타에	부세	르 브룅	다비드	합계
1700-1730	14	1	0	0	0	15
1730-1760	0	12	10	0	0	22
1760-1790	0	0	0	11	8	19
합계	14	13	10	11	8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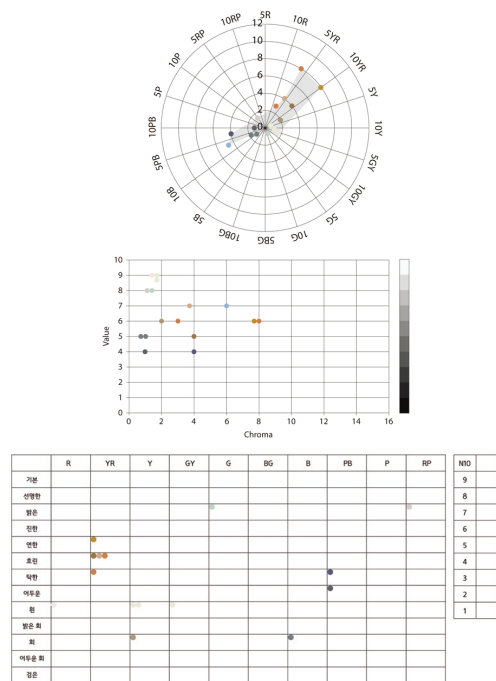


〈그림 9〉
1700-1730년대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주조색 경향

흰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고채도로 주조색을 뒷받침하는 강조 색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시기별 색채분석

18세기 내에서도 색채 경향의 변화가 발생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장에서는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궁정복식의 색채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시기별 분석을 통해 18세기의 색채 경향을 세부적으로 고찰하며 각 화가가 반영하고 있는 예술 사조를 알 수 있다. 연도의 흐름에 따른 회화 작품 속 복식의 색채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기구분은 Phyllis(1998)²⁷⁾의 기준을 적용하여 1700-1730년대, 1730-1760년대, 1760-1790년대로 나누었으며, 각 화가의 시기별 빈도는 <표 4>와 같다.



〈그림 10〉
1700-1730년대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보조색 경향

1) 1700-1730년대의 복식색채경향

(1) 주조색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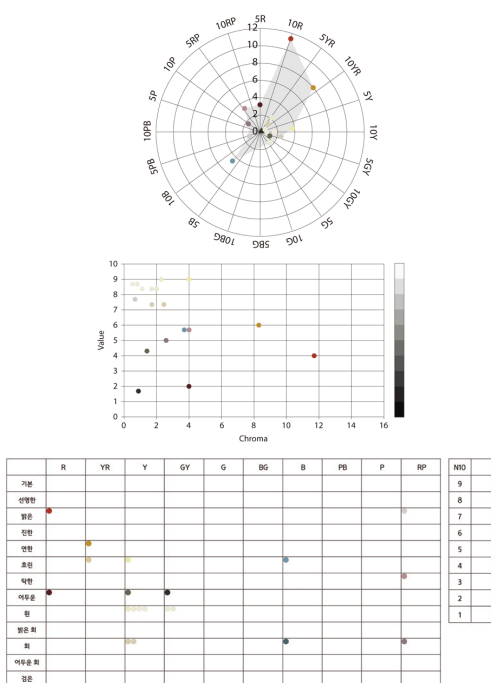
<그림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색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주로 Y 계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B, P 계열의 색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채도 또한 8 이하의 채도 값이 고르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4 이하의 저채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명도는 낮지 않은 값으로 나타나 4-9의 명도 값을 보였고, 명도 6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무채색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 G, B, PB, P 계열의 색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계열에서 골고루 분포하였다. 가장 많이 출현한 계열은 Y 계열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톤으로 보면 차례대로 흐린, 회, 탁한 톤이 많이 나타나 저채도의 색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선명한, 밝은 회, 어두운 회,

검은 톤의 색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흐린 Y 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보조색 경향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 색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저채도의 색이 많았으나 비교적 높은 채도 값의 색상도 있었다. 명도를 보면 8 이상의 높은 명도 값 보다는 중간 값의 분포가 많았다. Hue-tone 표를 보면 R, BG와 P 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 색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많이 나타난 계열은 YR 계열이다. 톤에서는 흐린 톤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흰, 회, 밝은 톤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채도가 낮고 명도가 높은 톤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는 흐린 YR 계열이 가장 큰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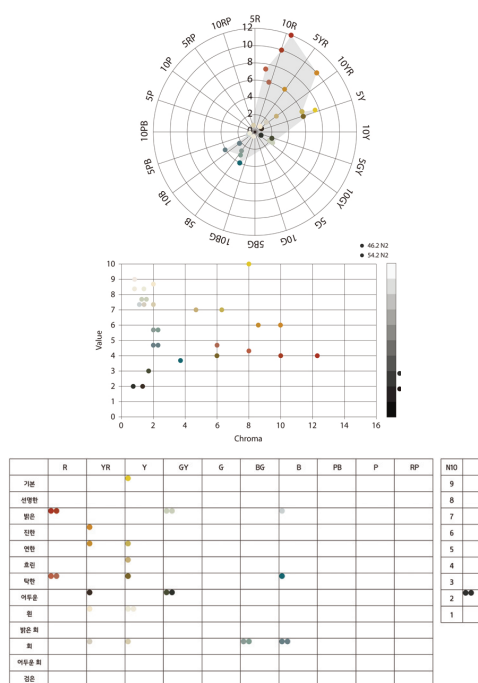
〈그림 13〉
1760-1790년대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주조색 경향

전체적으로 주조색은 Y 계열의 낮은 채도에 색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보조색은 PB 계열의 색이 나타나 주조색에 비해 고른 색상 분포를 보였다. 주조색과 보조색 모두 흐린 톤에 집중되어 있었다.

2) 1730-1760 년대의 복식색채경향

(1) 주조색 경향

<그림 11>을 통해 1730-1760년도의 뚜렷한 주조색 색채 경향을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색상을 제외한 모든 색상이 4 이하의 저채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색상 계열의 분포는 고른 편이나 대체로 Y 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채색은 N7과 N8로 흰 색에 가까운 색이 나타났다. 명도는 높은 값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낮은 명도 값도 나타났다. 색상은 어느 정도 고르게 나타났으나 특히 Y 계열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



〈그림 14〉
1760-1790년대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보조색 경향

었다. 톤에서는 회 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여 저채도·저명도의 색상이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회 Y 계열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보조색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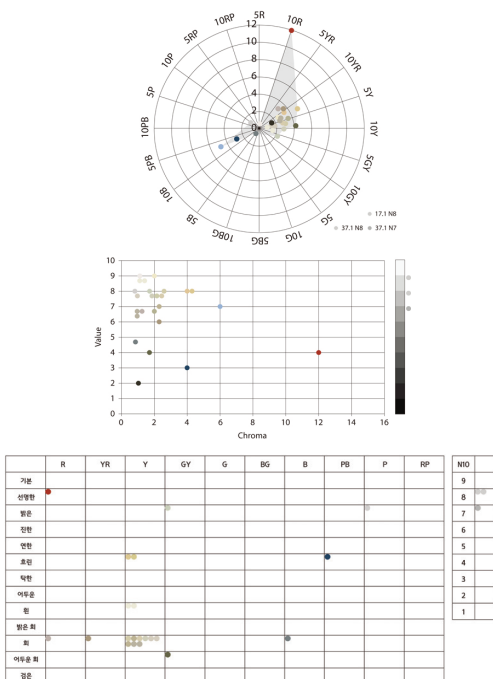
1730-1760년도에 사용된 보조색은 <그림 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색상과 채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색상은 R 계열부터 P 계열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채도는 8 이하의 값을 보였다. 채도의 경우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골고루 나타나 다양한 채도 값을 보였다. 명도는 대체로 중간 값으로 나타났으며 고명도의 색상보다는 저명도의 색상이 더욱 많았다. Hue-tone표에서는 색상의 고른 분포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G와 P 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색상이 나타나 다른 시대보다도 색상을 고르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

이 사용된 색상은 Y 계열이며, 그 다음으로는 R과 B 계열의 분포가 많았다. 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탁한 톤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두운 톤과 회 톤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탁한 R 계열과 어두운 B 계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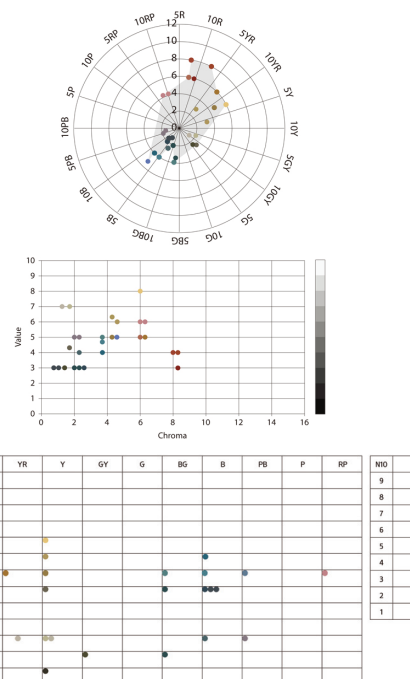
3) 1760-1790년대의 복식색채경향

(1) 주조색 경향

<그림 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1760-1790년도에 사용된 주조색의 색상은 골고루 나타났으나 G 계열의 색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채도는 낮은 값부터 12의 고채도의 색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채도는 비교적 낮은 값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명도의 경우 고명도에서 저명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7-9의 고명도에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 색상은 G와 P 계열을 제외한



<그림 11>
1730-1760년대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주조색 경향



<그림 12>
1730-1760년대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보조색 경향

<표 5>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여성 궁정복식 색채분석 결과

		주조색	보조색
18세기 전체		흰 Y	회 Y
시기별	1700-1730	흐린 Y	흐린 YR
	1730-1760	회 Y	탁한 R, 탁한 B
	1760-1790	흰 Y	밝은 R, 밝은 GY, 탁한 R, 어두운 GY, 회 BG, 회 B, N2

나머지 계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히 Y 계열에 집중되어 있었다. 톤으로는 흰 톤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회, 어두운, 흐린 톤의 순서로 나타났다. 색상과 톤을 종합하여 보면 흰 Y 계열이 가질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 보조색 경향

<그림 14>와 같이, 1760-1790년 회화에 나타난 복식의 보조색 사용은 P와 RP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채도는 낮은 값에 집중되어 있었다. 무채색은 N2값으로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이 나타났다. 채도의 최대값은 12로 비교적 높은 값에도 고르게 나타났다. 명도는 2에서 10까지 넓은 폭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G, PB, P, RP 계열의 색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Y 계열의 색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톤에서는 회 톤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밝은 톤이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밝은 R, 탁한 R, 밝은 GY, 어두운 GY, 회 BG, 회 B 열이 각각 2번씩 나타나 보다 색상의 사용이 상당히 다양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8세기 회화작품에서 복식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색채 경향을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IV. 결론

18세기는 회화에 우아하면서도 여성적인 취향이 반영되었던 시기로, 특히 부드러운 색채와 화려한 표현이 특징적이며 파스텔 톤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18세기 회화에 나타난 프랑스 궁정 여성복식의 색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 복식의 색채경향은 흰 Y, 보조색은 회 Y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둘째, 시기별 색채분석 결과, 1700-1730년대의 복식의 주조색으로는 주로 Y 계열, 보조색은 PB 계열의 색이 등장하였으나 주조색과 보조색 모두 흐린 톤에 집중된 경향을 알 수 있었다. 1730-1760년대의 복식의 주조색은 회 Y 계열, 보조색은 탁한 톤의 R 계열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1760-1790년대의 복식 색채의 사용으로는 흰 Y 계열이 주조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보조색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는 18세기 로코코 회화의 색채 경향이 파스텔 톤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색상의 분포가 B 계열보다는 R과 Y 계열에 집중되어 있고, 저채도·고명도에 집중된 분포는 당시 복식에 사용된 색채가 은은한 파스텔 색조로 부드러운 장미색, 밝은 하늘색 그리고 빛바랜 노란색이 유행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당시 색채 경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복식의 색채 경향을 회화를 통해 분석한다는 것에는 또 다른 한계점이 있다. 먼저 박물관

관 공식 사이트에서 수집한 이미지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육안으로 보는 색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실제 회화 작품의 색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나, 회화 작품을 측색기로 직접 측정한다고 해도 과거의 그려졌기 때문에 여러 화학적 반응을 통해 원래의 색이 퇴색 혹은 변색되어 회화 작품이 그려진 당시의 원래 색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타 연구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색을 추출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연구자에 따라 다른 색상을 추출하는 주관적 방법이다. 또 본 연구에서 수집, 분석한 작품은 선정한 각 화가의 작품 전체가 아니며, 18세기 화가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8세기 전반적인 색채 경향을 파악하기에 분석 대상의 수가 다소 부족한 제한점을 밝혀둔다.

연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회화에 나타난 과거 복식의 색채 경향 분석은 그 연구 축적이 매우 부족하므로 계속하여 시도해볼 만한 연구 분야라 사료된다. 추후 시기와 계층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복식 색채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과거의 복식 색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Marilyn, J. H. (1968).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3.
- 2) 이호정, 조우현 (2012). 가산풍속화를 통하여 본 한국 근대복식 고찰, *복식*, 62(4), pp.15-31.
- 3) Phyllis, G. T. (1998).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206.
- 4) 김연주 (2010). 마리 앙투아네트 복식을 통해 본 로코코 복식의 조형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3.
- 5) 전인옥 (1985). 미술사조가 복식에 미친 영향, *복식*, 9(1), pp.63-74.
- 6) 장은숙, 김정희 (2002). Joan Miro의 초현실주의 회화 작품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연구, *패션디자인학회지*, 2(1), pp.45-60.
- 7) 강희명, 김혜경 (2009). 현대 추상화를 모티브로 한 패션디자인 연구, *패션디자인학회지*, 9(1), pp.61-75.
- 8) 김영인, 이윤주 (1994). 아르데코 시대를 중심으로 한 복식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22(8), pp.119-134.
- 9) Gage, John (1999). 색채의 역사. 미술, 과학 그리고 상징, 박수진 옮김 (2011). 서울: 사회평론, pp.12-13.
- 10) Gowing, L. (1996). *Les Peintures du Louvre*, France: Éditions de La Martinière, p.589.
- 11)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 자료검색일 2013. 4. 6. http://standard.go.kr/CODE02/USER/0j/01/colorstandard_05.asp
- 12) 이계진 (2010). 근대 서양복식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한서대학교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 13) 이미소 (2014). 로코코시대 여성복식과 현대 여성복식에 나타난 로코코 이미지의 색채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14) 정홍숙 (2010). *서양복식문화사*, 파주: 교문사, p.235.
- 15) 남정화 (2009).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18.
- 16) Fuchs, E. (2011). *풍속의 역사*, 이기웅 옮김 (2001). 서울: 까치, p.117.
- 17) 김윤아 (2010). Jean Antoine Watteau의 회화작품에 표현된 와토 가운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 18) Gombrich, E. H. (1994). *서양미술사*, 백승길, 이종승 옮김 (2013). 서울: 예경, p.482.
- 19) Janson, H. W. & Janson, A. F. (2001). *서양미술사*, 최기득 옮김 (2008). 서울: 미진사, p.372.
- 20) 김윤아. 앞의 책, p.18.
- 21) Posner, D. (1996). The 'Duchesse de Velours' and Her Daughter: A Masterpiece by Nattier and Its Historical Context, *Metropolitan Museum Journal*, 31(-), pp.131-140.
- 22) 이미소. 앞의 책, p.14.
- 23) Janson, H. W. & Janson, A. F. 앞의 책, p.374.
- 24) 황극수 (2004). 자크 루이 다비드의 회화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25) 위의 책, p. 35.
- 26) Janson, H. W. & Janson, A. F. 앞의 책, p.394.
- 27) Phyllis, G. T. 앞의 책, pp.236-242.

A Color Analysis of Women's Court Costumes in 18th Century French Paintings

Ryu, Kyung Hwa · Kim, Yang Hee⁺

Master's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promote understanding on the color culture of costume by analyzing the colors of women's court costumes in the paintings of 18th Century France. The study questions are; first, to examine the overall trend of color of costume in 18th centur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lors of women's court costumes in France. Second, to examine the changes of color and compare the colors of women's court costumes in the 18th century French paintings according to a periodic time flow. The costume style of 18th century France played a leading role in Western Europe at the time. For these reasons, the researcher examined the oil paintings of court painters, Watteau, Nattier, Boucher, Le Brun, David. The research deals only with costumes, including textiles such as shawls, but excluding accessories. The color analysis program released by Saekdong Korea is used. The result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white Y type for main color and grey Y type for sub color is used the most, and this explains the usage of soft color at that time. Furthermore, the dispersion of color is more focused on R type and Y type than B type showing low chroma and high brightness.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the color trends of costume in 18th century coincide.

Key words: Color analysis, color trend, court costume, 18th century France